

식품 집중 탐구

침

▶ 침 요리

숙취 해소·해열... 녹용 버금가는 약효

에스트로겐 풍부 골다공증 예방
차로 마시면 몸 노폐물 배출 효능

99세까지
88하게

여름날 숲에 가면 유난히 고온 보
랏빛 꽃잎이 눈에 띈다. 젊은 혼자서
는 넝쿨을 가리지 못해 나무를 감고
자란다.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
든지 털이 뽀송뽀송한 새순을 뺏어
근질근질 생명력을 이어간다. 과거 산
에서 나뭇짐을 묶을 때 침을 사용했
다.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는 침 뿌
리를 씹어 즙을 먹고 갈증을 풀기도
했다.

젊은 공과에 속하며, 국내 산과 들
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. 8월경 자주
색 포도송이 같은 꽃을 피운다. 잎은
비교적 작은 타원형 모양이다. 줄기
는 기다랗게 뻗어 나무를 감아 올라
가며, 질겨서 예전에는 밧줄로 사용
했다.

깊은 산속 오염되지 않은 토양의
영양분을 흠뻑 머금고 있는 침은 인
간에게 유용한 식물이다. 무성할 수
풀 속에서 자란 침이 좋다.

침 성분의 70%가량은 물이며 당
분, 섬유질, 단백질, 철분, 인, 비타민

들이 골고루 들어 있다. 땅 속에서 막
울라온 새순의 맛과 향은 녹용과 비
슷하고, 지속적으로 쓰면 효능이 녹
용 못지 않다고 한다.

어린순을 뜯어 무친 나물은 그 맛이
일품이고, 쌀과 섞어 지은 찹밥 또한
별미이다. 잎과 꽃을 우려낸 차와 뿌
리와 꽃을 넣어 담긴 술도 빼놓을 수
없다. 오래 묵은 침뿌리에는 전분이
많아 흉년에는 밥 대신 먹기도 했다.

침 뿌리는 갈근(葛根)이라 부르는데
봄과 가을에 캐서 껍질을 벗겨 햇
볕에 말려 식용 또는 약용으로 쓴다.
팍이 나지 않거나 갈증이 날 때 혹은
가슴이 답답할 때 먹으면 좋다.

또 식물성 에스트로겐(estrogen)
이 석류보다 많아 갱년기와 폐경기
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
효과가 있다. 식물성 에스트로겐은
호르몬제보다 부작용이 없다.

젊은 발한, 해열 등에도 효과가 있
으며 병면이나 침국수 등으로 만들
어 먹는 등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.

흔히 즙을 내서 먹는데 황달에는
침즙을 마시면 곧 풀리고, 오래 복용
하면 불면증도 사라진다. 침즙은 근
육에 쌓인 염증 및 통증 유발 물질을
제거하는 효과가 있다. 또 주독을 빼
는 데는 침즙 만한 게 없다. 알코올과
니코틴의 독을 없애고 간장을 보호해
준다. 술을 마신 뒤 침차를 마시면 술
이 빨리 깬다. 미리 침차나 침즙을 준



침은 숙취 해소에 좋고, 중년 여성들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비해 두었다가 술자리 가기 전에 마
시면 갈증을 해소해 주고, 주독도 풀
어주는 건강 음료가 될 수 있다.

또 침샘을 자극해 열이 나고 입이
마르는 것을 방지해주며 두통, 홍역
에도 효능이 있다. 탄수화물, 무기질,
비타민C 등 각종 영양소를 다량 함
유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아
토피나 여드름 치료와 피부 미용에
도 좋다.

침에서 전분(녹말)을 내어 먹거
나 약으로도 쓰고 있다. 더운 물에 갈
분을 타서 마시면 초기 감기는 곧 낫

는다. 갈분은 설사에도 효과가 있다.
민간요법에서는 위장약으로 쓰이고
있다.

전분을 만드는 법은 갈근을 갈아
물을 넣고 잘 저어서 녹말이 뜨게 한
다. 이것을 자루에 넣어 물을 넣고 짠
뒤 놓아두면 녹말이 가라앉는다. 앙
금에 물을 넣고 잘 저어서 놓아두기
를 여러 번 하면 흰 녹말이 된다. 이
것을 말리면 전분이 된다.

열이 나면서 땀이 나지 않는 감기
에는 갈근탕이 좋다. 갈근탕은 갈근
8g 함박꽃뿌리·마황 각각 4g, 피나

무 가지, 대추 각각 3g, 감초뿌리 2g,
생강 1g에 물을 넣고 달이면 된다. 갈
근탕은 결막염, 축농증 등도 치료해
준다. 하루 3번 나눠 뜨거울 때 먹으
면 된다.

침꽃은 열을 내리고 가래를 잘 나
오게 하며 피날 때와 술독을 푸는데
쓴다. 또 과음으로 인한 두통, 발열,
식욕부진, 복부 팽만, 구토 등을 다스
린다. 말린 침꽃 9g 정도를 20~30분
간 달여 마시면 된다. 갈근은 줄기가
풀색을 띠고 속이 빈 것이 좋다.

/오광록기자 kroh@kwangju.co.kr



▲침 배추찜=①배추는 삶아 놓는다. 다진 쇠고기, 침전분, 다진 양파, 다진 당
근을 소금, 후추 간해서 잘 치댄다. ②배추를 깔고 재료를 넣고 돌돌 만든다.



▲침차=말린 침을 대추와 함께 은근히 끓여서 꿀을 탄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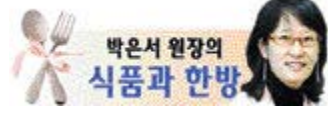
▶침 표고버섯 오븐
구이=①표고는 물
에 불려 준비해 두
고 침전분을 표고에
묻힌다. ②쇠고기,
양파, 당근, 파, 마
늘을 소금, 후추 간
해서 표고에 올려
진다.



▶침 비빔국수=①
침국수를 삶은 뒤
찬물에 헹군다. ②
계란 지단을 만들
고 오이, 당근을 채
썰어 팬에 볶는다.
불린 표고는 불고
기 양념해 볶는다.
③모든 재료를 섞
어 불고기 양념 간
한다.

<도움말=김지현 요리학원 지미어 강사·푸드스타일리스트 김민경>

“서늘한 성질, 갈증·전신 쇠약증 치료”



침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식물이다. 주변
에서 쉽게 채집할 수 있어 모든 부위가 약재
로 쓰이고 있다.

꽃은 주독을 풀고, 가루는 갈증을 없애준
다. 잎은 금창(金瘡)을 다스리며 피를 멈추게
한다. 근육 발달이 왕성한 체질에게 특히 도
움이 된다.

침은 서늘한 성질이며 열을 내려준다. ‘생
진지갈(生津止渴)’이라고 해서 인체 내부에

서 부족한 체액을 만들어 주고 갈증을 멈추
게 하는 효능이 있어 갈증과 전신 쇠약증상
을 치료해 준다.

‘동의보감(東醫寶鑑)’에는 “갈기 물살, 두
통을 치료하고 땀을 내게하며 주독(酒毒)을
풀어준다.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, 위(胃)의
열을 내려준다”고 기록됐다.

또 발진을 없애주고 술독을 풀어주며, 양
기를 위로 올려주는 효능이 있다. 몸을 따뜻

하게 해 설사를 멈추게 하는 등 지사제 역할
도 한다. 배가 차고 아프면서 설사를 할 때는
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.

침은 땀을 내서 열을 내려주어야 할 때, 열
굴이 붉고 뒷목이 굵은 사람이 목이 빠근고
열이 나면서 땀이 나지 않을 때 좋다.

또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혈관의 저항을 낮
추고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. 현대인들
의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협심증, 심근경색,

뇌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
다. 선천성 심장병 뿐만 아니라 감기, 독감,
인후염, 편도염, 이질 등의 발열성 질환에도
약으로 쓰인다.

침은 코피, 토혈(吐血) 등의 출혈성 질환을
치료하고, 칼이나 못 등에 베인 상처에 쥘어
서 붙이면 상처가 잘 아물어 파상풍을 예방
할 수 있다.

하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위가 차거나
땀이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. 또 증상과
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
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.

<광주에인한의원 062-374-7575>

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young, Sunwontrend, Daeji, A+ Eaplus, and Hanil.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, prices, and contact information.